

2023년 소방승진 시험 총평 (이패스 소방사관 김경진)

과목		소방위 소방전술
전체총평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부분 예상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고 박스형 문제가 다수이므로 문제 풀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. - 그나마 타 직급보다는 단답형(6, 9, 12, 14) 이 다소 있었다고 볼 수 있음. - 문제가 비록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정답을 고르는데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현장실무를 통하여 이해가 필요함. - 또한 다소 애매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며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
분석	유형별	화재진압 : 7문제 재난현장SOP : 1문제 구조분야 : 9번 구급분야 : 8문제
	수준별	상(15%) 중(70%) 하(15%)
어려웠던 문제와 그 이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부분 예상했던 일반적이고 평이한 문제였고 새로운 사각지대 문제가 없음. - 그렇지만 지문 내용이 단순하기보다는 생각이 필요하고 현장 활동을 이해해야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임. - 특히 17번 문제는 작년예와 비슷하게 대통령령인지 시도규칙 인지를 묻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음. - 특히 세계조화시스템(GHS)는 그림 파일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매년 출제될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준비가 필요함.
기타의견 (내년 시험 대비 학습법 등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강수업 때 항상 말했지만 향후 시험 유형은 지문이 길어지고 박스형 형태의 문제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대비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함. - 단답형의 단순 암기위주 보다는 현장 활동을 이해하는 학습 형태가 필요함. - 또한 그동안 매년 출제되었던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들이 변형을 통하여 출제되고 있는 만큼, 관현해서 학습방법의 전환이 필요함. - 소방전술은 현장활동이라 평소 구조구급대 방문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현장활동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